

#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Social Capital to Human Ecology

보건복지부

사무관 서지원\*

Ministry of Health & Welfare

Deputy Director : Seo, Ji-Wo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to the studies of human ecology in Korea. Social capital theory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zing well being of families because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can be understood as an important family resource, including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s, and family structure. The utilization of the social capital theory, consider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equality, in the studies of human ecolog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ocial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s a system that are related with environments, and provide a basic theoretical framework for discussing family structure, human capital development, poverty, and healthy families.

---

▲주요어(Key Words) :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가족자원(family resources),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 인적자본(human capital), 건강가족(healthy family)

### I. 서론

1980년대 사회관계망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적합성에 대한 동의를 이루어낸 이래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이미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Arrow, 2000).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이라는 용어가 개념화되기 시작한 이래 사회자본이론은 사회경제적 현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여 왔다.

가정과 사회와의 구조적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가는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학 연구에서 사회자본이론의 다양한 활용방안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가족이 소유한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의 측면을 인식하고 가족자원이 지닌 사회자본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사회경제적 가치를 통해 가족자원의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자본이 가정생활의 질적 측면 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그것이 결국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해 가정학의 여러 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온 인적자본, 물질자본 등과 함께 가족성원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며 공공재적 특성을 띤 사회자본을 가족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정생활지원 관련 정책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가족자원의 효과를 사회자본이론을 통해 확장시킴은 물론 지금까지 가족원의 삶의 질 향

---

\* 주 저 자 : 서지원 (E-mail : jwseo@hanmail.net)

상, 즉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가정학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관련된 가정학 연구 결과에 대한 재해석 및 재평가를 가능케 할 것이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선 사회자본이론을 토대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소개하고,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함께 다룰 것이다. 둘째, 기존의 가정학 연구에서 주요대상이 되어 온 가족자원이 지닌 사회자본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정학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위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이 인적자본 및 물질자본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인적자본 및 물질자본의 형성에 대한 가족자원의 역할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가정학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가정론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자본 개념을 통해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가정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성

###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 개념은 신고전경제학 이론을 확장시켜 한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 및 교환의 경제적 중요성을 소개하는 것에서 비롯하였다 (Field, 2003). 다양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은 Pierre Bourdieu, James Coleman, Robert Putnam 등 세 학자들의 연구가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데(Field, 2003), 먼저 이들의 개념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사회자본을 정의하겠다.

프랑스의 학자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제도화 여부를 떠나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이 상호인지와 인식이 가능한 견고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적된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Bourdieu & Wacquant, 1992). 따라서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관계망의 규모와 그 관계망에 포함된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규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인간관계의 속성이 상대방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교환과 거래, 상호작용 등은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친밀한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한다(Bourdieu & Wacquant, 1992). 시장의 논리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환인 선물을 하는 행위를 예로 들어 보면 사회자본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Coleman은 사회자본을 그 자체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Field, 2003).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구조의 한 측면으로서 그 구조내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촉진하고 다른 자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존재 없이는 불가능한 목적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인 기능을 가지며,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다"고 정의되었다(Coleman, 1988: 98).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물리적 자본, 재정자본, 인적 자본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하였으며, 다른 자본과 달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자본은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인 가족관계 내에, 그리고 지역사회 등에 내재하는 자원이다. 특히 발달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완충(buffering)과 완화(resiliency) 등의 개념과 제도적 자원, 사회관계망 등의 사회학적 개념을 연결한 Coleman의 통합적 이론은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친밀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가족이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enson & Deal, 1995). 예를 들면 가족관계나 지역공동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자본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효과는 미국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가족의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 Coleman은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 즉, 책임감(obligations)과 기대(expectations), 정보 채널(information channels), 사회 규범(social norms) 등을 강조하였다. Coleman에 의해 강조된 미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곧 가족자본(family capital)으로 간주되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명백한 가족자원(family resource)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Coleman(1988)은 대부분의 사회자본은 공공재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용한 사회자본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한 연대'의 가족이나 공동체의 확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utnam은 사회자본을 그 사회의 문화적·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을 둔 가치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설문에 기초한 대규모 사회조사 결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Putnam(1993)

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신뢰(trust), 규범(norms),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 등을 포함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하며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다. 사회자본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자의 잠재적 비용 증가, 상호성 규범의 견고성, 정보흐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집단적인 행동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결망이 잘 갖추어진 사회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회에 비해 뛰어난 경제적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Putnam, 2000). 이러한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은 특히 신뢰 등 사회의 조직적 및 문화적 특성이 갖는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Fukuyama(1995)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Putnam의 사회자본이론은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 그 자체로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사회관계망은 그 구조적 측면을 넘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 신뢰(trust), 상호이해(reciprocal interest) 등을 전달하는 사회자본의 매개체 혹은 중요한 통로로도 기능한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망과 건강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인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Putnam, 2000). 첫째, 사회관계망은 유형의 물질적인 도움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관계망은 건강에 관한 규범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관계망은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협상하게 한다. 넷째, 사회관계망을 통한 상호작용은 실제로 신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론은 지역사회, 공유된 가치, 신뢰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일상생활을 통해 개념화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과 관계(relationships)가 경제적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에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Field, 2003).

## 2.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

### 1) 사회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

사회자본에 대한 강조는 가족이나 친족, 이웃과 같은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른 위기의식 등 현대적 상황에 대한 기능주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자본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결속력 등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장치라는 입장(Bourdieu, 1986; Coleman, 1988)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사회자본은 개별가계는 물론 지역사회 혹은 국가 단위의 신뢰의 수준은 해당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거래비용의 절감을 유도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신뢰수준 자체가 곧 사회자본으로

정의되기도 한다(Fukuyama, 1995). 이러한 점에서 World Bank는 사회자본을 제3세계 등 경제적 후진국의 경제적 빈곤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Sabatini, 2003).

그러나 사회자본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 기능 역시 위와 같은 긍정적 기능과 함께 주목받아야 한다(Portes, 1998)는 논의 역시 제기되고 있다. Portes(1998)는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 개인 자유의 제한, 집단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하향평준화 되는 규범 등의 부정적인 기능이 사회통제의 근원, 가족 지지의 근원, 가족외적 연결망을 통한 혜택의 근원으로서의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의 결합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 불평등을 양산한다(Bourdieu, 1986). Bourdieu(1986)는 프랑스 엘리트 집단이 소유한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자본의 전수가 자르전수의 가장 중요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는데, 혈연, 지연, 학연 등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여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공동선에 대한 가치의 공유, 사회규범 등이 부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비판적 관점이 주목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 측면의 사회관계망은 한국 사회에서 가치중립성을 상실한 "연줄망"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김왕배(2001)의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시장에서의 역량을 증대시키며 여타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연줄망"을 통해 인적자본이나 문화자본 등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계급구성과 재생산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화된 사회관계보다 정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생활문화가 발달한 한국사회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이 공식적 사회관계망보다 상대적인 효력이 크다고 보았다.

어떤 형태의 사회관계망이 한국사회에서 공동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산시키며 사회자본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석춘 등(2003)은 여러 쟁점 가운데서 사회자본에 내재한 특성, 즉 폐쇄적 관계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사적 신뢰가 열린 관계망을 통해서 공적인 제도로 전환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신뢰관계는 닫힌 관계망을 통해 배타적인 바탕으로 전환"(이재열, 1998:79, 유석춘 등(2003)에서 재인용)해 왔으므로 이처럼 부정적인 사회관계망의 역할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신뢰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의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찾는 방법(이재열, 1998)이 대안으로 강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연결망만이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신뢰를 제공해 주는 원천”(유석춘 등, 2003)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에 긍정적 측면이 존재함을 부각시키고 그 대안으로서 한국사회 고유의 사회자본의 원천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구 집단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하여야 한다(유석춘 등, 2003)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2) 계층에 따른 가족 내 사회자본의 특성

사회자본이 지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은 가정의 경제사회적 수준 차이의 따른 사회자본의 특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가족이 소유한 사회자본으로 인한 사회계층별 가족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상류층, 중간계층, 저소득층 가족의 가정생활로 나누어 계층별 사회자본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먼저 상류층 가족의 사회자본의 특성은 영국, 미국 등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을 통해 조직력을 발휘하고 특정 계층의 자원 동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상류층의 관계망은 특히 결혼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김왕배, 2001; 공정자, 1990), 특히 재벌가나 중상류층의 혼인유형 분석(김왕배, 2001; 공정자, 199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상류층은 결혼을 통한 사회관계망, 즉 혼맥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 지속시키며 다음세대로 전승한다.

상류층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상류층 가족의 주거시설로 선호되고 있는 초고층·주상복합건물 거주자와 입주예정자의 공유공간 관리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홍형욱·채혜원, 2004)를 보면 거주자 집단은 주민 공유공간 이용 경험을 통해 공유공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집단의 경우 입주예정자 집단에 비해 분양가격을 높이더라도 공유공간의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공유공간이 이웃 간의 친밀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류층 사회자본에 폐쇄적 특성 역시 내재함을 보인다. 거주자 집단의 경우 81.6%가 공유공간의 지역 사회 개방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 입주예정자 집단은 부분적인 개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과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간 계층 가족의 경우, 화이트칼라 계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안정된 직업을 기반으로 하여 인적자본과 물질자본의 토대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사회자본의 수준 또한 높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김자혜·김미숙, 1990) 한국의 중간 계층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성적 지원은 계층의 세대 간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자본으로 기능한다. 이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영향 관계를 양 방향에서 모두 설명한다 하겠다. 즉 중간계층 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며(Bourdieu, 1986; Coleman, 1988), 또한 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훈련수준은 보다 나은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계층 유지 및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적자본 역시 사회자본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in, 2003).

이러한 중산층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1960, 70년대 도시 중산층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과도한 열망으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극성스러운 어머니상과 더불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녀중심적이고 소비지향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에 나타나는 사회자본의 특성에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재경(2003)의 연구에서 중산층의 젊은 부부들의 경우 왜 가족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위기와 불안을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는지, 왜 친정을 포함한 친족 간의 상호협력력을 중요한 극복기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내 사회자본의 형성과 활용의 양상은 한국사회 중산층의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곤란, 기혼여성의 생계형 경제활동 참여,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의 유사한 성격을 대체로 공유하는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동류혼의 비율이 높고(박숙자, 1991), 핵가족 형태를 띠며, 여성 가구주와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다른 계층 보다 높다(이두호, 1991; 장세훈, 2005).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및 친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모부양의 사례는 적고 친척들과도 먼 거리에 있어 경제적 교환 등 상호교환이 다른 계층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순, 1990).

한편 정진성(2001)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IMF 경제위기 당시,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경제적 위기 하에서 친족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시가와 친정 간의 경제적 도움의 관계를 비교하면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중요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 시부모는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가지는 대상인 반면, 친정부모는 다

른 친지에 비해 더욱 중요한 존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성,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평상시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유지영과 김명자(1996)의 연구에서 친정친척, 시가친척, 친구, 이웃, 참여단체 등으로 분류된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 가운데 친정친척, 친구, 시가친척의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과 대략 일치한다.

최근 한국사회의 도시 빈곤 현상을 서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빈곤(new poverty)” 현상으로 규정하는 논의(구인화, 2002; 노대명, 2002; 조명래, 1997)는 경제적 차원의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 문화·심리적 소외 등으로 인한 복합적 빈곤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도시빈민은 소득계층별 주거지 분화로 인한 열악한 주거지역의 집단 거주로 인해 공간적 격리감과 고립감의 형성을 보인다(장세훈, 2005). 따라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자본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촌에 사는 일부 도시빈민가족의 경우, 비록 공간적 격리와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주거환경인 지하셋방 주거집단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주민 간 연대의식을 확고히 갖춘 동질적인 집단을 꾸리고 있기도 하다(장세훈, 2005). 따라서 사회자본에는 동일 계층 내에서도 일반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다양성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정학 분야에서도 저소득 계층 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부모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망, 사회적 지원 등의 사회자본의 특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I. 가정학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위치

Lin(2003)은 사회자본이 (1) 개별 행위자가 접근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양적·질적 자원, (2) 사회관계망에서의 위치(location)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개념화에는 각각 자원으로서의 특성과 사회관계망이라는 특성이 강조됨을 볼 수 있다. 가족원 간의 관계, 가족원과 주위의 다양한 가족환경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가족자원이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정학 연구에서의 사회자본의 학문적 위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생태체계이론 및 사회관계망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자본이론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체계의 특성과 가정의 자원화 개념을 통해 가정학 연구에서 차지하

는 위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은 이미 가정학의 여러 하위 분야, 특히 가족자원경영학, 아동학, 가족관계학 등에서 체계이론, 사회관계망 등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기반으로 가족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학문분야, 즉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족의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종합적인 가족정책에 관여하는 여러 학문의 관심의 접점으로 기능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생태체계내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이론은 가정학 연구의 주된 이론적 기반이 되어온 생태학 이론(Bronfenbrenner, 1979)과 체계이론(von Bertalanffy, 1968)을 통해 더 넓은 사회적 조망을 획득함으로써 다중적인 맥락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Benson & Deal, 1995). 즉 개별 가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를 둘러싼 상위의 위계적 환경, 즉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과의 밀접한 관계맺음을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생태체계이론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내에서 파생되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지지 및 사회관계망, 신념, 상호신뢰 등의 자원이 “사회자본”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생태체계로서의 가정을 전제로 가족자원은 사회자본과 특성을 공유한다.

#### 2. 사회관계망으로서의 사회자본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회자본의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자본의 분류 가운데 사회자본을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분류(Warren et al., 1999)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겠다. 결속적 사회자본이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의 사회자본 형태라면, 교량적 사회자본은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자본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를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에 활용하여 보면, 결속적 사회자본은 아동, 환자, 노인 등의 부양, 집안일, 정서적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관계망과 연관된다. 한편 교량적 사회자본은 정보의 측면에서 자신의 한계, 즉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넘어서는 데 도움을 주는 관계망으로서 가계경제 및

자녀의 인적자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직정보, 상품구매, 자녀교육 관련정보의 취득 등에 관련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사회자본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 자본이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1) 결속적 사회자본과 사회관계망

결속적 사회자본은 가족관계학 분야의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 즉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그리고 정보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 등과 대략 일치하는 개념이다. 최근 도시 핵가족 주부(원효종·옥선화, 2002), 청소년(이완정, 2003), 중년기 여성(유지영·김명자, 1996), 중년기 남성(이기숙·김현지, 2002), 농촌 노인(이형실, 2003)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는 사회관계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일차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적응과 복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가족의 삶의 형태와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주로 사회적 지지가 자신과 사회관계망 간의 역동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상호친밀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이 가져오는 신체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Craig, 1983)에 주목하여 사회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심리적 복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대체로 실증적 연구에서 사회관계망은 사회관계망의 구성, 밀도, 동질성, 지속성, 지리적 근접성, 접촉빈도, 친밀도, 방향성 등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었다. 사회관계망은 사회관계망의 다양성, 관계범주별 지배성, 다양성과 지배성의 조합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원효종과 옥선화(2002)의 연구에서는 친족단독형, 친족중심형, 친구중심형, 이웃중심형, 동료중심형, 병립형, 분산형 등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도시 핵가족 주부 가족의 사회적 지원에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관계망 유형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영역별 총지원량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주로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이완정, 2003),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지의 의미를 의미하고,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이란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적 측면으로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이 해당된다. 이완정(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주변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친척, 선배, 교사 등 비공식적 관계망에 주목하였다. 즉 세 개의 껍질을 주고 각 원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친척, 선배, 교사, 인터

넷의 지인 등의 4가지 관계로 나누어진 연장자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3명까지, '꽤 가까운 사람들'에 3명까지,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에 3명까지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식화하였다. 이형실(2003)의 연구에서 농촌노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 얼마나 자주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는지 측정하였다.

한편 결속적 사회자본은 한국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함으로써 취업을 지속하도록 지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가족외적 사회자본, 즉 지역사회 의 보육시설과 서비스 지원, 직장의 보육시설과 서비스 지원 과 함께 가족내적 사회자본, 즉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와 자녀양육의 도움은 첫 자녀 출산 후 취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자원이다(서지원·이기영, 1997). 한국의 핵가족 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이재경, 2003)에서도 취업주부들은 친족 사회관계망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수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교량적 사회자본과 사회관계망

교량적 사회자본은 정신건강, 신체건강, 생활만족도 등 감정적 보상과 더불어 보다 나은 직업, 보다 빠른 승진, 보다 많은 임금 등 도구적 보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Lin, 2003).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시작할 때 가족, 친척, 알고 지내는 사람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며, 때로는 지인의 추천이 취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미국, 독일, 중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의 연구결과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Field, 2003), 한국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정규(2004)의 연구에서 교량적 관계망으로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지도층에 속한 친척의 규모를 변수로 사용한 결과 미취업자의 취업상태를 예측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척도 개발과 분석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가족이 지닌 중요한 사회자본인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관계적인 측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기여를 하는지를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의 삶의 질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만족도 혹은 생활만족도 이외에도 가계경제적 지위 등의 변동에 가족 내의 혹은 가족 밖의 사회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체계

가족 크기, 가족 구성, 가족체계 등은 가족자원의 양을 결정하며 가족경제의 목표인 만족도를 산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yant, 1990). 따라서 이는 가계경제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요인이 되어 왔다.

사회자본이론에 따르면, 가족체계는 일반적 수준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도 사회자본이라 볼 수 있다(Teachman, et al., 1997). 보편적으로 결혼상태, 자녀수 등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의 응집력 수준, 사회관계망 등을 결합함으로써 경제적 복지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취업 경험 등의 인적자본 변수와 다른 사회자본 변수, 즉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변수 등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체계 변수, 즉 자녀수, 여성의 결혼상태 변화 등은 미국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05).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은 가족체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양자를 잃어버린 여성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김미숙 등, 2000), 특히 경제적 가족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관계망이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며(한경혜, 1993),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이재경, 2003). 그러나 이혼이 반드시 사회자본의 수준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혼 후 사회관계망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도 관찰되었다(옥선화 등, 2004). 따라서 가족체계의 변화와 가계경제 수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분석을 통해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를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그에 따른 소득 혹은 자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만혼, 이혼, 저출산 현상 등 가족체계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의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가정의 자원화에 대한 사회자본이론의 기여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잠재력으로서의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가정학의 여러 연구

분야에서 사회자본이론을 도입하고 활용함에 있어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정학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가정생활에 관련된 가족 내 사회자본을 통해 가정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자본이론은 가족의 사회자본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와 잠재적 역량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자본 이론은 궁극적으로 가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인 “가정의 자원화”와 그 맥락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가정학을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재개념화하는 노영주 등(1999)의 연구는 가정 혹은 가정생활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 상황에 있는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증재해 주는 매개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가정복지는 “일정한 단위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통적인 문제와 욕구들을 해결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정의 자원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노영주 등, 1999: 179)으로 개념화되었다. 여기에서 가정의 자원화는 가정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활용하고 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에 대한 가정의 요구를 수렴함과 동시에 가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의 가정의 자원화는 가족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에서 가정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가정생활에서의 민주성과 성평등은 물론 공동체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가족의 사회자본은 가정생활을 이루는 물적·인적 자본의 토대가 됨과 동시에 가족자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가정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정복지의 정책적 목표이자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물론 가정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역할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 역시 인식되어야 하며 연구문제의 제기 및 연구 수행과 결과 해석 등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경계와 성찰이 요구된다.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본 가족의 사회자본에 갖는 기능주의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별, 계층별 불평등의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그것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비민주적이고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가족관계, 상대적 빈곤의 심화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저하, 비합리적인 자원관리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인 여성이 취업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족의 사회자본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의 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Coleman(1988)은 가정 내에서 “친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에 청소년 자녀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의 확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족은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일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가족은 사회자본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었다. Parcel과 Menaghan(1994)의 연구에서는 Coleman(1988)의 이러한 해석이 성평등에 대한 무지(gender blindness)에서 비롯하였으며 모성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과장하는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즉 자녀 행동의 차이에 대하여 어머니의 다양한 취업 조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취업하지 않으면서 집에 머무르는 전업주부 어머니의 존재가 자녀의 인적자원 발달에 기여한다고 단순히 결론내릴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 즉 어머니, 아내, 혹은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능론적 측면은 친밀하면서도 성평등한 가족관계에서 비롯하는 가정복지에 대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VI.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의 특성

지금까지 가족자원은 가족의 가치실현과 욕구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으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과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강조되었다(김외숙 등, 1997). Bryant(1990)는 주로 개별 가족원이 소유한 개인적 자원에 주목하여 제한된 가족자원을 가족원 각자의 시간, 기술, 에너지 등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s)과 소득 등 금융 자원을 포함한 물적자원(physical resources)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 가족자원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대 비인적 자원(nonhuman resources),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 대 관계적 자원(interpersonal resources), 인적 자본/물적자본/심리적 자본 등으로 분류(김외숙 등, 1997)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자원 가운데 “협동, 사랑, 충성,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두 사람 이상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인적 자원”(김외숙 등, 1997: 114)을 뜻하는 관계적 자원은 사회자본에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서 사회자본을 정의한 바와 같이, 협동, 사랑, 충성, 커뮤니케이션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사회자본으로 볼 때, 관계적 자원은 사회자본을 통해 형성된 결과로서의 인적자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다.

사회자본은 특성상 다른 형태의 자본과 대체관계 혹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즉 사회자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중요성을 가지며 동시에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등 다양한 차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회자본이 맺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자본으로서 가족자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자본이론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역할을 가족자원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족자원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물적자본의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의 특성을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 1.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가족자원의 역할

사회자본은 인적자본의 증진을 위한 자원으로 기능하며(Bourdieu, 1986; Coleman, 1988), 사회자본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가정 내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자녀의 인적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설명되었다(Coleman, 1988). 여러 실증적 연구(Coleman, 1988; Teachman et al., 1997)에서 사회자본은 재정자본과 인적자본을 통제한 후에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실증적으로 가족 내의 사회자본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훈육 등에 사용하는 시간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을 통해 자녀의 인적자원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결정하는 부모의 존재여부, 자녀수, 어머니의 취업 상태,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등이 사회자본의 변수로 사용되었다(Coleman, 1988). 이러한 사회자본의 측정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 혹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수준의 척도가 고안되어 사용될 수 있다. Teachman 등(1997)은 보다 일반적인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해 가톨릭계 학교 등록여부와 계부모, 이혼한 어머니, 미혼모인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 다른 부모의 존재 등 가족체계 변수를 사용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측정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수준, 그리고 부모와 학교간의 상호작용 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사회자본 변수들은 모두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재정자본과 인적자본 등과 결합하여 자녀의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데 상호작용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실증적으로 부모의 인적자본이나 재정자본의 수준과 뚜렷이 구별되는 자원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원으로 볼 수 있다.

가정환경과 함께 사회적 환경 역시 교육의 성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웃 간의 유대감이 청소년의 학교 중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미국의 연구(Elder et al., 1995)는 가족 밖의 사회자본, 즉 지역사회 환경이 교육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한다. 특히 이웃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가족의 전략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실증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가까운 이웃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 혹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자녀의 취학단계별로 이웃과의 유대의 특성과 그 효과를 자녀교육의 성취라는 중요한 가정생활의 한 목표에 대한 평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사회자본이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가족의 인적자본과 재정자본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사회자본 즉, 부모의 시간과 친구의 경제적 도움은 자녀의 수학기간과 관련이 있었으며 결국 자녀의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지만, 저소득층 가족의 인적자본과 재정자본의 낮은 수준은 자녀의 대학진학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erth, et al., 1998). 즉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정책은 인적자본의 형성을 보장하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한국가족의 계층별 사회자본의 수준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 등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여, 미래의 계층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 내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투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물적자본의 형성에 대한 가족자원의 역할

사회자본은 임금과 소득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Lin, 2003). 따라서 사회자본은 빈곤과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닌 양 방향으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극복은 개별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적자본의 결핍을 물적자원 제공만으로 보충하는 방법에는 자원

의 한계 등이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빈곤가정에 도구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빈곤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이미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통해 빈곤계층의 중요한 경제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규명되어 왔다. 즉 빈곤계층은 부족하지만 필요한 자원을 상호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혹은 좌절감 등 일상의 감정, 문제해결 방법 및 일상생활에서의 대처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빈곤계층 부모됨의 질적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Benin & Keith, 1995; McLoyd, 1990; Stevens, 1983).

빈곤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서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은 실제로 빈곤가족의 경제적 고충을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관계망, 지역사회에서의 신념과 믿음 등의 사회자본의 개발을 통해 개별가계가 스스로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는 비용절감이라는 중요한 긍정적 정책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므로 매력적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는 복지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의 “확장된 척도” 가운데 하나로 개발되었다(Bauman, 2003). Seo(2005)의 연구에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미국의 저소득층 가주 여성의 사회자본은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특수한 가족 및 친족관계를 포함한 사회관계망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영향 역시 다양한 한국 가족의 삶의 질을 객관성 있게 평가하는 새로운 준거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개별가정의 사적 책임을 강조할 경우, 공적 책임의 회피를 저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하겠다. 물리적 자원이 빈곤한 가족 스스로의 사적인 연결망의 확보를 통해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은 연대책임의 사적인 확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사회자본의 강조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을 인정하되, 계층별 사회자본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불리한 경제사회구조 하에서 빈곤가정이 어떻게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사회자본의 확보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확장된 사회관계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

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한국가족의 계층별 경제적 복지 구성요소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건강가정론과 사회자본

지금까지 가정학 분야에서 가족자원을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견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이 지닌 공공재적 특성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은 안정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필수조건이며 문화적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사회자본이론을 통한 가정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자체로서 사회자본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강가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가정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2003년 12월 2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조희금, 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성안 및 제정 과정에서 가정은 개인, 가정,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생태체계라는 점에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책임과 지원이 강조되었다. 즉,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을 자원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체계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조희금, 2005).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 즉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신뢰, 상호이해 등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가족의 사회자본이 지니는 공공재적 특성은 이와 같은 가정의 자원화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지지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사회자본의 경우 과소 투자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적 자본의 질적 하락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이들에게 유용한 사회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와 잘 부합한다. 따라서 가족자원이 지닌 사회자본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가정론만으로는 개인주의화라는 시대적 물결에 대응하기 어렵다(한겨레, 2005)”는 견해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Coleman(1988)의 사회자본 연구가 성평등적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었던 점을 인식하여 여성의 헌신을 전제하고 건강가정의

이상에 이를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가족 내 친밀한 유대관계와 더불어 민주성과 평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념화된 건강가정은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에 의한 가족문제에 대하여 개별 가족성원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적 부조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가정이란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 양육이나 노인 부양,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인 사회적 지원은 물론 확장된 사회관계망을 통한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시스템하의 가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자원을 사회자본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의 주체로서의 가정을 기술하며 여러 정보의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개별 가족구성원 혹은 개별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가정학 연구에서 사회자본이론을 활용한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가족이 가진 사회자본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와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가족이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의 교환을 위해 비공식적·친족적 사회관계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공식적·비친족적 사회관계망으로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가 맞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및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조희금(2005)의 연구에서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과 개인화의 가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외형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화, 의식, 행위 등에 이르는 내용상의 변화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장경섭, 1991)는 점에서 한국 가족이 소유한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서의 원효종과 옥선화의 연구(2003)의 결과를 볼 때 한국 핵가족의 경우 외형적 측면에서 핵가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가족적 이상으로 인해 갈등적 유대를 맺고 있으며 이는 이재경(2003)의 사례 연구의 결과와도 맥이 닿아 있다. 따라서 친족적 사회관계망 혹은 사회적 지지와 비친족적 사회관계망 혹은 사회적 지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가족의 외형적 변화가 얼마나 내용적 변화를 동반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가족과 지역사회와 다양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족자원의 수준에 잠재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 아동 유기, 청소년 탈선, 노인 유기 등 가족의 변화 혹은 가족의 해체를 낳는 원인이 되는 현상들에 대하여 접근해야 한다. 개별 가족이 한정된 관계망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유대를 맺는 방식보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유대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원이 요구하는 다양한 관계망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유대가 강하다는 것이 사회자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사회관계망의 양적·질적 확장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개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제기하는 비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에 따른 경험적 성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변화를 단지 해체의 위기로 간주하여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며 건강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한겨레신문, 2005)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은 현상적인 가정의 건강성을 기준으로 개별가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지니는 사회자본을 비롯한 가족자원의 잠재력 차이를 개별 가정의 자원화 과정에 반영한다. 건강가정론에서는 이러한 사회자본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과정을 통해 사회전체의 공공성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VI. 요약 및 결론

사회자본이론은 1980년대 들어 서구의 사회학 분야에서 태동하여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도입되어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자본이론은 가족체계, 사회관계망, 지역사회의 공유된 가치, 신뢰 등이 경제적 수행과 관련되므로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에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Field, 2003). 한편 가정생활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가족자원의 사회경제적 의의를 입증하는 데 기여해 온 가정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원, 가족체계, 가족관계 등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

구들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가족자원을 사회자본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자원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가정의 자원화를 통한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제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한 가족관계 및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회자본이론을 가정학 연구에서 활용함에 있어서 이미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성원에 대해 지나치게 요구하며 외부인을 배척하고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을 저지하면서 가족의 지지와 가족외적 연결망의 사회적 지지, 원활한 사회적 통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사회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회자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즉 건강한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며 더불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족내적·외적 연결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신뢰수준 향상과 경제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여전히 개별가정의 사회경제적 토대에서 주로 결정되는 계층별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한국 가족의 사회자본이 지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의 특성을 규명하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한국가족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등에 기반을 둔 가족자원을 사회자본으로 활용하되, 그 이면에 내재할 수 있는 어떠한 성별·계층별 불평등, 차별 등의 부정적 측면도 극복할 잠재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처한 가족의 문제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한국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로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족자원은 잠재력을 지닌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일차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이차적인 인간관계가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원리로 정착하게 된다고 믿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두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한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유석춘 등,

2003).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발전을 위해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건강가정문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정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수용하여 가족의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쟁점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정부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구체적 정책과제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이론은 무엇보다도 가정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가정학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맺어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의 공공성을 증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론의 가정학 연구에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가족 및 사회구조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인 설득력을 갖추어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가족의 사회자본은 2005년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5대 핵심 가족정책 추진과제인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여성가족부, 2005)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가정학의 새로운 연구과제로서의 의의가 더욱 크다. 나아가 사회자본이론의 쟁점이 되는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혹은 '개방성'과 '폐쇄성' 등과 관련된 한국가족의 사회자본 구조 및 특성이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함으로써 가족자원관리학, 가족관계학 등 가정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걸친 새로운 쟁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학제적 사회자본이론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일 : 2005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6월 26일

#### 【참 고 문 헌】

공정자(1990). 재벌가의 혼인유형.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 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김미숙·박혜경·박상헌·홍석균·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 일상생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7). **가정관리학**.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김자혜·김미숙(1990). 화이트칼라 가족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김혜경(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재·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 16, 67-102.

노대명(2002).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

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3.

박숙자(1991). 도시저소득층의 혼인 양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변화순(1990). 영세 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4).

서지원·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10.

여성가족부(2005).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옥선화·최새은·권소영·강유진(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원효종·옥선화(2002).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 도시 핵가족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49-164.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2003).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이기숙·김현지(2002).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40(6), 133-144.

이두호(1991). **빈곤론**. 서울: 나남.

이완정(2003).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49-60.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근대가족과 페미니즘**.

- 서울: 또하나의문화.
-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
- 이정규(2004). 사회적 네트워크와 구직과정 및 성과. *한국노동패널 제5차 학술대회 자료집*.
-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 임정빈(1987). 가정관리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5(4), 172-175.
- 장경섭(1991).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 국가: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
- 장세훈(2005). 현대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경제와 사회*, 66, 95-125.
-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 조명래(1997). 신빈곤에 관한 시론. *경제와 사회*, 34.
- 조은(1999).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봄호.
- 조희금(200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14.
- 한겨레신문(2005). 여성가족부에 바라는 소망. 2005. 6. 28.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홍형욱·채혜원(2004).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거주자와 입주예정자의 공유공간 관리에 대한 태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23-132.
- Arrow, K. J.(2000). Observations on social capital. In P. Dasgupta & I. Stiglitz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3-5). Washington, DC: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Bauman, K. J.(2003). Extended measures of well-being: Living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8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Repor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enin, M. & Keith, V.(1995). The social support of employed African American and Anglo mothers. *Journal of the Family Issues*, 16, 275-297.
- Benson, M. J. & Deal, J. E.(1995). Bridging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561-566.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 Bourdieu, P. & Wacquant, L.(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yant,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raig, G. J.(1983). *The middle years: Continuit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Elder, G. H. Jr., Eccles, J. S., Ardel, M. & Lord, S.(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771-784.
- Field, J.(2003).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London: Hamish Hamilton.
- Hofferth, S. L., Boisjoly, J. & Duncan, G. J.(1998). Parents' extrafamilial resources and children's school attainment. *Sociology of Education*, 71, 246-268.
- Lin, N.(2003).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oyd, V.(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Parcel, T. L. & Menaghan, E. G.(1994). Early parental work, family social capital, and early childhood outcom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972-1009.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abatini, F.(2003). Ben Fine(2001) social capital versus social theory: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scien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 SpA*, 32, 403-408.

- Seo, J.(2005). *Overcoming economic hardship: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Stevens, J. H.(1988). Social support, locus of control, and parenting in three low-income groups of mothers: Black teenagers, Black adults, and White adults. *Child Development*, 59, 635-642.
- Teachman, J. D., Paasch, K. & Carver, K.(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5-1359.
- Von Bertalanffy, L.(1968). *General system theory: Foundations,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Braziller.
- Warren, M. R., Thompson, J. P. & Saegert, S.(1999). *Social capital and poor communities: A framework for analysis*. New York: Fordham University.